

스스로 만드는 바인더북 백과

콜린즈 출판사의 '팩스파인더' 시리즈

장익순
출판기획가

편집심리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가운데 하나이다. 자신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변의 사물을 모아 가지런히 엮으려는 이 심리 덕택에, 인간은 문화를 쌓아 올리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편집심리는 일종의 발달 심리이다.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편집 심리를 발동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서 편집 심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모으고 또 모은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종류의 딱지를 누구보다도 많이 모으려 한다.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은 물론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상한 것, 놀라운 것, 재미있는 것, 괴상하게 생겨서 무언가 마음을 끄는 것, 정갈한 백지,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위해 꼭 써야 할 것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편집 대상이 된다. 어떤 사물이나 정보를 모아서 자신의 의도나 생각에 따라 정리할 때, 그는 그 사물을 비로소 '소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영역을 '확장' 하는 것이다. 편집함에 따라 그는 발달한다.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이다.

하퍼콜린즈 출판 그룹의 콜린즈 출판사가 펴낸 팩스파인더(FAX FINDER) 시리즈는 바로 이런 어린이의 편집 심리를 겨냥한 작품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을 주제별로 엮어서 재미있는 소책자로 만든 다음, 이들 소책자를 하나하나 모아서 스스로

콜린즈 출판사가 펴낸 '팩스파인더' 시리즈, 주제별 소책자를 스스로 바인딩하면서 직접 한편의 책으로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로 한편의 바인더 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꾸며졌다.

소책자는 10.5cm×17cm의 크기이며, 주제는 동물의 세계, 풀리지 않는 세계의 미스터리, 몸의 상식, 지구와 우주, 위대한 발명품, 세계의 사건, 세계의 대재앙, 성채(城砦) 등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32쪽의 얇은 두께이지만 다양한 삽화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다보면 어느덧 역사적인 상상력과 과학적인 창의력을 풍부히 키워가게 된다.

6개의 바인딩 고리를 가진 바인더 북에는 각 주제별 소책자의 표지가 인덱스로 붙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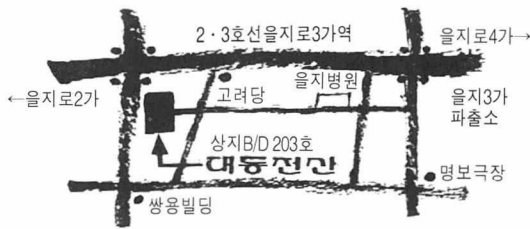
8권을 모두 모아 바인딩하면 훌륭한 한편의 어린이 백과사전이 된다. 다양한 소재들

을 주제별로 체계화시켜 놓은 1차 자료들을 가지고 어린이가 직접 한편의 책으로 꾸미도록 한 것이다. 호기심과 편집 심리를 탐구심과 얇은 기쁨으로 이끄는 훌륭한 기획물이다. ❖

아래아 한글 (IBM PC) 출력센터

- F1 필름, 인화지, 레이저 프린트 출력
- F2 PC로 작업한 데이터 편집출력
- F3 입력, 편집대행, 교육지원
- F4 다양한서체, 최대한자 및 고어지원
- F5 MS-WORD, 훈민정음 등

신속 · 정확
(일본어 조판전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6 상지B/D 203호
전화번호 : 275-0196~7,
265-9271 275-7143

팩 스 : 275-7145 천리안 · 하이텔 : SOGO0318

❖ 전철 2·3호선 을지로3가역 을지병원출구

24시간출력
기다리겠습니다!

대동전안

**“좋은 출력
좋은 책!”**